



LG화학-중화유그룹 모로코에 5만 규모 LFP 양극재 공장 건립 04



Economy

코스피	2508.13 (-6.84)	코스닥	857.35 (-3.33)
금리 (미국 3년)	3.876 (-0.054)	환율 (원/달러)	1336.80 (-2.90) (22일)

K반도체 최악 피했지만... 삼성·SK, 脫중국 대안 고심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공개된 초안서 큰 변동 없어 웨이퍼 생산제한 등 일부완화 장기적 中 제재 강화는 여전 인도 등 공장유치 위해 총력

미국이 '가드레일' 최종 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의견을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졌다. 중국에 적지 않은 규모로 투자를 이어왔던 국내 반도체 업체도 대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관련기사 3면>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조항인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에 반도체 투자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지켜야 하는 조항이다.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은 지난 3월 공개한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연간 생산량을 전년 대비 18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는 5%, 이를 넘는 레거시 반도체도 10% 이상 증산할 수 없다.

오히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완화한 부분도 있다. 웨이퍼 생산량 제한 기준을 당초 월에서 연으로 바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거래' 규제도 삭제, 장비 반입도 따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데만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자체 생산한데다가 국내산 메모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규제 확대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은 업계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그룹에도 미국이 중국 생산 기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목적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생산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선단 공정 도입을 막고 수익성도 낮추겠다는 의미가기 때문. 현지 메모리 업체가 빠르게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탓에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인도와 베트남 등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유치에 힘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을 떠나는 산업을 자국으로 들여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

그 중에서도 인도는 이미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시작했다. 2021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1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물심양면 지원에 나



태권도 품새 대표팀의 강완진(25·홍천군청)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강완진은 24일 중국 항저우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품새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1, 2경기 평균 7.730점을 기록해 대만의 마원중(7.480점)을 꺾었다. 강완진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

서면서 마이크론이 10조원에 가까운 투자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인도에 투자와 진출을 진행 중이다.

전체 산업계에서도 인도는 이

미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들이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 투자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3 제약·바이오포럼' 블록버스터 신약 위한 플랫폼·오가노이드 '새물결'

메트로경제는 오는 10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에서 '바이오의 새물결, 플랫폼과 오가노이드'란 주제로 '2023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의 꿈을 좇아 연구개발(R&D)에 매진해 온 시간은 어느덧 20년을 훌쩍 넘었고 크고 작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의 영역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도 다수 등장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이상의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연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만들고, 연매출 3조원 이상 글로벌 50대 제약사 3곳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간 민관이 합쳐 25조원 투자도 추진 중이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신약 개발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여전히 높은 규제 등으로 성공 확률이 낮은 탓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십수년간 연구개발에 매진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은 제약·바이오 업계로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0여년 만에 동물실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비동물 실험을 거친 약물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역시 동물 실험의 점진적 폐지를 선언하며 글로벌 입상의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생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만이 가진 독자 기술을 활용해 개발 중인 치료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지속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약·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짚어보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 행사명 : 2023 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제 : 바이오의 새물결, 플랫폼과 오가노이드
- 강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기조강연)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연구센터장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연구과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美 고금리 장기화 예고... 주담대 부담 불가피

국고채 10년물 금리인상 땀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올라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동안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져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연 4.17~7.10%로 집계됐다. 전날(연 4.17~6.19%)과 비교하면 상단이 1%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이날 주담대 고정금리도 연 3.90~6.47%로 전날(연 3.90~6.09%) 보다 상단이 0.33%p 올랐다. 이달 1일 5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05~6.97%, 고정금리는 연 3.83~6.25% 수준이었다.

◆美 10년물 국채 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국고채(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21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030%로 전날보다 0.078%p 상승했다. 연중 최고수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 선을 돌파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국내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를 산정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2일 기준 평균 4.4712%로 이달 1일(4.2612%)과 비교해 0.2%p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인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은행의 '한미금리 동조화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금리의 경우 미국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채(10년물) 금리는 지난 4월말 3.42%, 5월말 3.64%, 6월말 3.84%로 상승했는데, 이에 동조해 국고채(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3.36%, 3.53%, 3.68%로 올랐다. 8월말 미국채 금리가 4.11%로 오르면 국고채 금리도 3.82%로 상승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외교 다음 초점은 중국... 시진핑, 연내 방한 주목 /사진 뉴스스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중진' 3인 출마...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여당 "문 전 대통령, 이재명 구속위기에 도 공익사업 홍보" ▲한총리, 항저우서 韓선수단 격려... 강원동계유스올림픽 홍보도



▲박진, 네덜란드·우간다 등과 회담... '중견5개국' 믹타 회의 참석 /사진 뉴스스 ▲김정은, '9·9절 축하' 시진핑에 답전... "긴밀히 연대 협력"

韓 고용률 69%, OECD '평균 이하'

2분기 38개 회원국 중 28위 그쳐 40대·29세이하 일자리수 줄어든 탓 일본 79%로 5위, 아이슬란드 1위 여성 고용율 더 낮아... 61%로 30위

지난 2분기 우리나라는 각국 고용률 비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또다시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올 들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고 40대 및 29세이하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등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24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4~6월에 15~64세 고용률이 69.2%로 집계됐다. OECD 평균(70.1%)에 못 미친 데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나라 고용률은 1분기(66.7%)와 2분기(65.4%), 3분기(65.6%), 4분기

(65.6%) 등으로 다소 주춤한 바 있다. 2021년에도 65%~67%에 머물다가 2022년과 올해 1분기에 68%대를 기록했다.

최근 69%대로 올라섰으나 여타 주요국 수치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일본이 78.9%로 5위에 올랐다. 일본의 경우, 아이슬란드(84.7%)와 네덜란드(82.5%), 스위스(80.7%), 뉴질랜드(80.3%) 등과 함께 국민 5명 중 4명가량이 직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스웨덴과 호주,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가 75%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 10개국에 들었다.

또 에스토니아(11위·76.6%)를 비롯해 체코(14위), 헝가리(15위), 리투아니아(19위), 슬로베니아(20위), 슬로바키아(22위), 폴란드(24위), 라트비아(25위·71.8%) 등도 한국에 앞섰다.

이 밖에 캐나다(12위), 영국(13위), 미국(23위) 포르투갈(21위) 등이 72%

~76%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여성에 국한한 고용률은 더 낮았다.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61.4%로 30위로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본 역시 전체 고용률에 견줘 여자 고용률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캐나다와 함께 73.3%를 기록해 12위에 올랐다. 이스라엘(23위·68.7%)과 미국(25위·67.4%) 등도 한국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남성 고용률(76.9%)에서 20위에 올랐으나 OECD 평균(77.0%)을 넘어서진 못했다.

남자 부문은 네덜란드(86.1%)가 1위, 스위스·일본(84.4%)이 3위 독일(81.0%)이 7위, 영국(79.4%)이 9위, 스웨덴(79.4%)이 10위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 15~29세 취업자 수가 10개월(전년동월대비) 연속으로 줄었다. 40대는 1년 2개월째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황금연휴' 앞둔 인천공항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중소 특별자금 21.3조 공급

금융위, 추석 연휴 자금지원 방안 산은·기업은행 13조, 신보서 8.3조 은행권서 78.4조 규모 대출도 마련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기간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2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카드결제 대금도 최대 7일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21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5조8000억원의 신규대출과 7조2000억원의 만기연장을 통해 총 13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수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규모는 1조8000억원, 만기연장은 6조5000억원이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

한다. 신규대출은 총 31조3000억원, 만기연장은 47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 기간은 오는 10월 13일 까지며,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하면 추석명절 특별자금 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영세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일을 최대 7일 앞당긴다. 연매출 5~30억원의 중소기업 44만 4000개가 대상이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26일 결제된 카드대금은 다음달 4일입금되어 하지만, 27일로 최대 7일 앞당겨진다. 26일과 27일 결제된 대금은 다음달 4일과 5일로 1일 앞당겨진다.

추석 연휴기간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소비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없애고, 연체이자없이 자동 만기되도록 조치했다. 예컨대 추석 연휴기간 상환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일자는 10월 4일로 자동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 싶은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27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또 각종 연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영끌족, 월소득 44% 원리금상환에 써야

>> 1면 '美 고금리 장기화 예고'서 계속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안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9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연준이 내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대보다 조금 내리겠다는 상황이어서 이와 연계된 대출 금리는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영끌족들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중간 가격대의 집을 마련한 사람은 매월 가구 소득

의 절반 가량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로 집계됐다. 이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월 소득의 44%를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담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늘고 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515조 6173억원으로 8월 말(514조 9997억원) 대비 6176억원 늘었다. 8월엔 1조 5912억원 늘었다. 2021년 11월(2조 3622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예적금 만기 일정이 몰려 있어 은행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도 우려된다"라며 "원리금상환 계획을 보수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韓 기업, 정상적 경영활동 전망... 정부 “美 협력 지속 추진”

우려대상국 5% 이하 확장 허용
산업부, 가드레일 규정 긴밀 협의
“기존 생산설비·기술협력 유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장이 5%까지 허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상무부는 앞서 올해 3월 초 미국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countries of concern) 내 설비확장이나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진출한 중국이 타깃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우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에 제공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28nm 및 이전세대 반도체 등)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5% 초과 확장시 기존 10만달러 기준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해 사실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가드레일은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 YMTC 등 우려대상국 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선싱 등 기술협력을 금지했다. 다만, 국가표준이나 특히 관련 활동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

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서도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했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 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꼽았다.

산업부는 “업계는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인도·태국 등 新생산기지 주목... 업계 “용인클러스터 착공부터”

>> 1면 ‘K반도체 최악 피했...’서 계속
인프라 관건... “해외투자 쉽지 않아”

14억명에 달하는 인구와 저렴한 인건비가 최대 장점이다.

이미 스마트폰 공장 등 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반도체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베트남도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 팜

민진 총리가 최근 미국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체를 만나 투자 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응우옌 쉰억 폭 전 총리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서 반도체 투자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미 베트남은 인텔 패키징을 비롯한 반도체 공장을 여럿 두고 있다.

그 밖에도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

산 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 집적회로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중국 대안 중 하나로 올라섰다.

문제는 이들 국가가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

인도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려면 세척 등 공정에 쓸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한다. 강력한

지방 분권 체제로 정부와 일관된 소통 창구를 기대하기 어렵고, 카스트제도로 사회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력난도 심각하다. 인도와 베트남 등 해외 공장들이 정전으로 여러번 가동을 멈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국에서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관계와 환경 등이 겹쳐 더 신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미 국내에 대규모 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를 여전히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SK하이닉스도 청주에 새로운 공장 투자를 유예한 상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도 뜨지 못했다. 미국에도 거액을 투자해야 한다.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해외 추가 투자에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일단은 용인클러스터 착공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JUNG KWAN JANG

올 추석, 진짜 힘이 되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추석맛이 사은행사

2023.09.05 ~ 10.01

- 1 전제품 10% 할인 * 일부 품목 제외
- 2 정관장 멤버스 한정 5~10% 추가할인 * 일부 품목 한정
- 3 홍삼정 X 마누카꿀 기획세트 한정판매 * 일반식품 30,000 set
- 4 신규가입 시, 활삼28 [2병] 증정 * 일반식품 / 단, 5만원 이상 구매시, SMS 수신동의 YES, 1인 1회 한정

정관장에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 가드필 필요 없는 매장 픽업
- 마음을 대신 전하는 정물 배송
- 소중한 분께겐 특별 포장

LG화학, 모로코에 年 5만t 규모 'LFP 양극재 공장' 짓는다

中 화유그룹과 소재 공급망 강화
2026년 양산, 전기차 50만대 규모
리튬가공·니켈제련 등 수직계열화

LG화학이 화유그룹(Huayou)과 손잡고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또한, 리튬 가공과 니켈 제련, 전구체로 이어지는 양극재 소재 수직 계열화에 나선다.

◆ 모로코에 전기차용 LFP 공장 건설

LG화학은 22일 중국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함께 LFP 양극재 시장에 진출하고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모로코 LFP 양극재 공장 및 리튬 컨버전 플랜트(CP) 건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공장 및 전구체 공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LG화학과 화유그룹 산하 '유산'은



(왼쪽 네번째부터) 천쉐화(Chen Xuehua) 화유코발트 동사장, 남철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장 부사장. /LG화학

오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모로코에 연산 5만톤 규모의 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는다. LFP 양극재는 주로 보급형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소재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 고객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LFP 양극재 5만톤은 350km 주행 가능한 50kWh 용량 전기차 50만대에 필요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모로코 공장은 북미 지역에 공급할 LFP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모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양극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양사는 추후 IRA의 해외 우려집단(FEOC) 규정에 따라 지분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로코는 LFP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인 인광석의 매장량 전 세계 1위국가다. 모로코의 인광석 매장량 500억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73%에 해당하는 규모다.

LG화학은 모로코 공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하며 LFP에 망간을 더해 용량과 출력을 높인 LMFP 양극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LG화학은 모로코에서 화유그룹 산하 '화유코발트'와 리튬 컨버전 플랜트 사업도 추진한다. 컨버전 플랜트란 리튬 정광(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에서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시설이다. 모로코 리튬 컨버전 플랜트는 2025년까지 연산 5만 2000톤의 리튬 양산 체제를 마련하고, 모로코 LFP 공장에 리튬을 공급한다.

◆ 인도네시아에서 '양극재 소재' 수직

계열화 이외에도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IRA 충족을 전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제련·전구체를 아우르는 양극재 수직계열화를 위해 협력한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과 생산량 1위 국가로,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배터리 제조업과 전기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2100만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 중 22%를 차지하며, 니켈 생산량 연 76만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 중 31%에 해당한다.

양사는 인도네시아 연산 5만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 설립을 검토한다. 나아가 전구체 생산을 위해 니켈 광석에서 니켈 중간재(MHP, Mixed Hydroxide Precipitate)를 추출하는 제련 공장 설립도 논의할 계획이다.

신학철 부회장은 "모로코 양극재 공장을 글로벌 거점으로 삼아 새롭게 떠오르는 LFP 양극재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원재료에서 전구체,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소재 수직 계열화 체계를 공고히 해 세계 최고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의시, 교목 중에서>

세상에는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어느 시인과
그 뜻을 함께했던 어느 기업가처럼요
국안을 아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갑니다



KYOBO 교보생명

'비건에 진심' 신세계푸드 고기없는 미래에 '성큼'

식물성 대안 브랜드 '유아왓유잇'
식감·맛 일반고기와 다르지 않아
레스토랑서 간편식 3종도 판매

신세계푸드가 식물성 대안식 브랜드 '유아왓유잇(You are What you Eat)'을 론칭하고 고기없는 식단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

'유아왓유잇'은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더 나은 나와 지구를 위한 맛있는 식물성 대안식을 콘셉트로 개발한 브랜드다.

2021년 독자적 기술로 만든 대안육 브랜드 '베터미트(Better Meat)'를 선보인 신세계푸드는 지난 21일부터 강남구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지하 1층에 식물성 대안식 레스토랑 '유아왓유잇'을 오픈하고 운영중이다. 향후 순차 출시할 대안식 제품을 미리 접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인 셈이다.

신세계푸드는 매장을 통해 식물성 대안식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장은 밝은 오렌지 톤의 인테리어로 꾸며졌으며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아왓유잇' 메뉴판을 살펴보니 100%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만든 요리가 전체 16개 메뉴 중 9개에 달한다.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소스와 치즈, 오트밀크 등 다양한 대안식품을 활용해 만든 간편식과 외식 메뉴를 판매한다.

매장 대표 메뉴는 트러플 자장면과 아포카도 햄 포케볼, 분짜 짜조 채소트



유아왓유잇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간편식 제품.

리오, 크리스피 햄 샌드위치다. 모두 대안육과 식물성 햄을 활용해 만들었으며, 식감과 맛 모두 일반 고기를 넣은 것과 다르지 않다.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

전자레인지로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 제품도 매장에서 판매한다. 간편식 3종은 런천 김치 덮밥, 볼로네제 라자냐, 라구 리가토니 등 3종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번에 선보인 '유아왓유잇' 식물성 간편식 3종을 시작으로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즐기는 메뉴들을 식물성 간편식으로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편의성 위주로 성장했던 1세대 가정간편식(HMR)과 맛과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하며 등장했던 2세대 레스토랑 간편식(RMR)에 이어 건강과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3세대 식물성 간편식(PMR) 시장을 성장시키고 동시에 '유아왓유잇'을 리딩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한이 주거비 및 학습공간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신청해'를 신청하세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신청해'



대상: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출신 취약계층 청년 2,000명
내용: 수도권* 거주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용 지원 및 학습공간 이용비 지원
신청기간: 2023년 9월 18일 ~ 10월 9일 (3주간)
신청접수: www.shinchunghae.co.kr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통틀어 지칭함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을사조약 옹호·주식파킹 의혹 등… 험난한 인사청문회 예고

尹대통령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與 “국정 동력 확보에 도움될 것” 野 “꼬리자르기 등 퇴행적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들의 임명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퇴행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흥분도 흥상 철거,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신원식 후보자는 중장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의 초동수사에 따라 경찰에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의 이첩을 결재했으나, 이를 되돌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신 후보자로 교체 시도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정부를 규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한제국 말기 일제가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협정인 ‘을사조약

을 체결한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한,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비롯해 각종 막말을 쏟아낸 바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특히나 35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수할 적임자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김행 후보자는 새남금융스카우트 챔버리 대회 졸속 운영 문제가 불거진 후 물러나게 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후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지난해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지난 14일 입장을 밝혔다. 그 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낙태 관련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신타크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겼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해명을 요구 받고 있다.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김 후보자

는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 배우자가 자신의 소셜뉴스 주식 2만2000주를 ‘죽마고우’ 친구에게 3억8500만원에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산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주식을 친구에게 맡겨뒀던 것”이라며 “결국, ‘폼수 주식파킹’으로 백지신타크 제도를 무력화한 후보를 인사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김행 후보자의 천박한 욕심과 허접한 변명을 참고 들어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처음인 신 후보자와 김 후보자와 달리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의혹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예술계 좌파적격을 내세우며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서 야당과 예술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줄줄이 사퇴·반란표 색출…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여파

이 대표, 단식 중단하고 법원 출석 구속 결정 시 대표 리더십 공백 지적 기각될 경우 계파 간 갈등 깊어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증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줬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고,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

협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민주당에 끼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

으면서 또 한편으론 민주당의 내용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소수의 비이재명계의 주도로 진행돼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이더라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이미 사퇴했다. 비이재명계로 최고위에 합류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23일 사퇴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박태홍 기자

“野, 사법리스크 족쇄풀려… 與, 이제 무엇으로 때릴 건가”

적대적 공생관계 존재감 미약해져

국민의힘이 그토록 바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도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년 간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상대당의 대선급 후보였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까지 국회 경험 한 번 없는 이 대표였으나,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구축했다.

적대적 공생관계란 타협과 설득으로

야당 정치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의 실책을 혈투하며 본인의 지지층만을 강화해 결국에는 정치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그때마다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이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사당화 논란’이 불거져 나왔고 지난 2월에는 비회기 중에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맞서 임시회를 열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약해질수록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듭해오던 국민의힘의 존재감도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비윤계 대표후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 국민의힘에겐 위기라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에 민주당을 때리면 됐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가 당 대표 때문에 짊어 못하는 당이기 때문”이었다고 평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억눌러 왔던 방탄의 늪,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부터 족쇄가 풀린 것”이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40%대 진입

CBS노컷뉴스, 1017명 대상 여론조사 ‘잘못하고 있다’ 57.4%… 3%p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정운영 지지도가 6주만에 4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알앤씨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7명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RDD)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알앤씨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대비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4%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20일부터 22일까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시기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설득하고 주요국과 교역 확대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개발·디지털·기후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무기 거래 의혹이 있는 북러 정상회담을 규탄하면서 세계 각국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태홍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대 앞에 작아지지 않을 힘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 청년의 힘도 강해질 테니까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우리 청년에게
우리의 힘을**

기대출 제한 없고, 금리까지 부담 없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청년에게 힘이 되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확정금리 연 5%
(최초 1년간)

기대출 한도 차감 없이 최대 500만원 대출 가능
(CB등급에 따라 차등)

중도상환수수료 Zero
우리WON뱅킹 통한 무방문 / 무서류 대출

우리WON뱅킹으로
바로 가입하기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청년도약대출(이하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8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 소득자입니다. 개인신용평점 및 내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5백만 원, 대출금리는 연 5.0%입니다. 상품 가입 후,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우리은행 내부 산출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 신용도, 소득, 담보 방식, 보유 중인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여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체 이월은 적용 금리 + 연 3%(최대 연체 이월은 연 12%)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는 매 17일 단위로 후취 납부하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입니다. 단, 최초 1년간은 확정금리 적용됨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제외 대상입니다. *대출 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상(개인신용평점, 재직, 연 소득, 대출 현황 및 금융거래, 채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상단의 대출 대상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연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제 면적 제한으로 상품의 내용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꼭 참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6734(2023.08.11~2024.12.31)



추석 특수 잡자... 2금융권, 특판·이벤트 풍성

신용카드사 해외여행객 정조준 선물세트 할인 등 서비스도 강화 저축은행, 예금·파킹통장 금리인상 명절에 오고간 뭉치돈 확보 나서

한가위 '특수'를 노리는 2금융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일간 이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기존 고객의 충성도 제고는 물론 신규고객 유치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이 명절을 앞두고 고객 확보에 나섰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과 제휴를 통해 쇼핑, 여행 부문 할인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금 조달에 힘쓰고 있다.

◆ 신용카드사 쇼핑·해외여행 공략
신용카드사는 선물세트 할인 및 해외여행에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 강화를 통해 기존 고객의 충성도 확보와 신규고객 유치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

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명절은 소비자들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경쟁사 대비 행사의 질이 떨어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부터 편의점 등 생활영역 내 폭넓은 제휴가 돋보인다.

신한카드는 해외여행객을 정조준했다. '더라운지' 앱을 통해 이용권을 구매하면, 전 세계 1200여개의 라운지를 30% 할인한다. 이어 해외이용수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캐시백한다. 최소 결제금액 또한 5000원으로 실적 문턱을 낮췄다. 캐시백은 다음해 1월 일괄 지급한다.

삼성카드는 선물세트 할인을 선보인다. 최대 50%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40%, 50%를 할인한다. 결제금액에 따라서는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포섭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백화점 ▲GS수퍼마켓 ▲GS더프렌치 ▲농협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지원한다.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며 금액별로 상품권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자사 앱에 구축한 '뽕샵'에 추석 기획전을 열었다. 식품·생활&주방·뷰티·가전 행사상품의 10%를 즉시 할인한다.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최대 40% 즉시 할인 및 상품권을 최대 150만원까지 준다. 해당 카드사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인상
저축은행은 한가위에 발맞춰 예금·파킹통장 금리를 인상했다.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명절 간 오가는 '뭉치돈'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명절 예치는 '일거양득'이라고 설명했다. 기성세대에게 용돈을 받는 중장년층 및 대학생들의 예치 비중이 높아져서다.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차주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일 자사 예금 상품의 금리를 0.4%포인트(p) 일괄 인

상했다. '사이다뱅크 복리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4.2% 적용한다.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정기예금'이다. 연 4.0%로 책정했다.

같은 날 DB저축은행은 모바일전문 상품인 'M-드림빅(Dream Big) 파킹통장' 금리를 연 4.0%로 조정했다. 별도의 우대조건은 없지만 예치 금액별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5000만원까지는 연 4%를 유지하며 5001만원~10억원까지는 연 1.5%로 낮아진다. 10억원 이상은 연 0.5%의 금리를 준다.

JT저축은행의 '회전식정기예금'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달 0.2%p를 올리면서 연 4.5% 금리를 적용했다. 회전식정기예금은 만기가 6개월이다. '예테크족(예금 채테크족)' 사이에서는 '짧고 굵게' 자금을 운용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은 은행권 대비 소규모로 마케팅 하는 만큼 자사의 혜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NH협업카드X여행에미치다 협업 영상 장면.

NH협업카드 여행에미치다와 협업 고향 소개 영상 공개

NH협업카드가 협업을 통해 농어촌 여행을 홍보한다.

◆ '여행에미치다'와 협업
NH협업카드는 여행에미치다와 함께 '마음의 고향 키우기 프로젝트 지금(zgm), 고향으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국 각지의 고향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통영, 남원 등 전국 7곳 지역을 '마음의 고향'으로 선정했다. 각 고향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여행객의 사연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구성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일주일에 1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스포티비 나우와 제휴 신상품 출시·이벤트

신한카드가 스포티비 나우와 맞손을 잡고 신상품을 출시했다.

◆ 디지털 구독료 월 2만원 할인
신한카드는 '스포티비 나우 신한카드 구독 좋아요'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휴 카드는 스포티비를 포함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전자책 등 총 16곳 구독 업체의 이용금액을 전액 할인 받을 수 있다. 월 할인한도는 최대 2만원까지다.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정기성 결제에 대해서도 월 최대 2000원까지 할인한다. 아울러 편의점에서는 월 최대 4000원 할인을 탑재했다.

출시기념 행사도 준비했다. 스포티비 카드로 24만원 이상 이용하면 프리미엄 이용권(1년)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전국 센터 어르신들에 반려나무·후원물품

KB국민카드가 명절을 앞두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 전국 28곳 센터소속 독거노인 후원
KB국민카드는 독거노인지원센터 소속 어르신들 400여명에게 반려나무 및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영업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한달간 직접 양육한 반려나무와 '감사 메시지 카드'를 식료품 키트와 함께 지역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앞으로도 취약 어르신 대상 후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전국 지역사회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후원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경남銀 횡령사고 손실액 2988억 vs 490억... 진실은?

경남은행 "돌러막기 한 금액 합산, 실손실은 490억... 300억 회수 전망"

금융감독원의 BNK경남은행 횡령 금액(2988억원)과 경남은행이 산출한 순손실액(490억원) 간 차이가 6배에 달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를 발표하며 경남은행 PF대출 직원 A씨의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산출했다. 당초 알려졌던 금액인 138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 허위대출에 따른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위조를 통한 횡령액이 1965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금감원 검사와 산출된 2988억원이 횡령한 금액을 은닉하기 위해 '돌려막기'한 금액을 단



경남 창원 BNK경남은행 본사 전경. /경남은행

순히 합산한 것이며, 실제 순손실은 595억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95억원 역시 이미 대손처리된 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을 포함해 당초 발표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을

뿐, 추가로 발생한 손실은 아니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횡령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순손실 및 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어 이번 규모 변동이 경남은행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행은 지난 7월 이번 횡령 사고에 따른 손실금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공개한 재무제표에 정정 반영했다. 올해 초 경남은행이 공개했던 지난해 순이익은 2790억원이었으나, 손실액 490억원을 반영해 순이익은 2300억원으로 정정됐다.

또한 우발채무와 손해배상 청구 발생 시 손실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실적에도 105억원을 기타비용으로 손실 처리했다. 손실을 반영한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613억원이다.

동 점포를 운영한다.

은행권이 명절 이동점포 운영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20년 설날 이후 3년 만이다. 추석의 경우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그간 은행권은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이동점포를 대대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케팅 활동에 전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실시하면서 은행권 역시 유동인구가 몰리는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을 중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점포를 일시 중단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사실상 코로나 종료가 되면서 오랜만에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점포를

경남은행은 이번 횡령 사고로 발생한 실적 손실 중 300억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현금 및 귀금속 등 현금성 자산 151억원 가량을 증거물로 압수해 둔 상태며, 경남은행 측도 A씨의 가족이 보유한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경남은행 측은 해당 회수 가능 금액은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회수액은 전망치인 3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횡령 회수율은 통상 10% 미만이지만 이번 횡령 사고의 회수율은 60% 이상 예상된다"며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시중은행 명절 이동점포 4년만에 재가동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주요 거점공항에도 탄력점포 운영

시중은행들이 4년 만에 명절 이동점포 재가동에 나서면서 '신권'을 교환하는 추석 풍경을 오랜만에 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식 점포를 설치한다. 4년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KB 찾아가는 Branch'(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과 신권 교환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7~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일간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 이동점포 '뱅크드'를 설치한다.

같은 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 방향)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농협은행은 오는 27~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협성남유동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 이

다시 재개했다"고 말했다.

또한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주요 거점 공항에 있는 은행별 탄력 점포 역시 정상 운영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인천·김포·청주국제공항에서 환전소와 출장소를 탄력점포 형태로 정상 운영한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환전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하나은행도 역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환전소 운영시간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생성형 AI’ 서비스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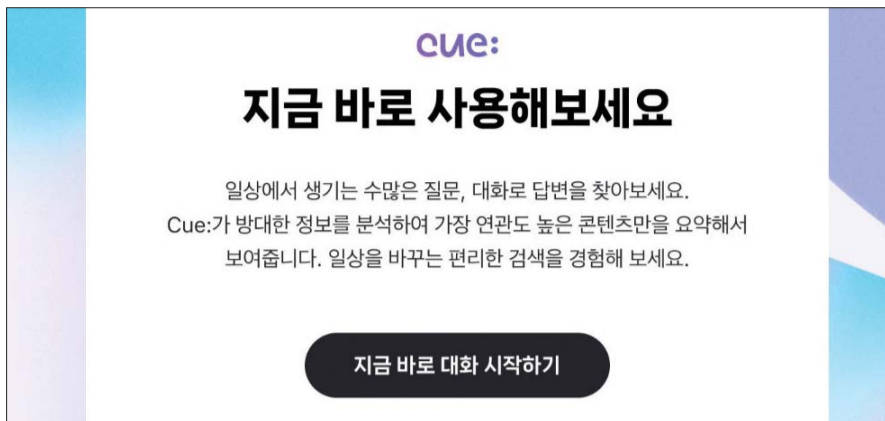
큐:, 국내 생활정보 ‘한 큐에’... 바드, 구글 기반 자료수집

네이버, 구글 등 생성형 AI 선배 각자 서비스 연계... 장단점 뚜렷 오답 해소 등 고도화 지속 필요

생성 AI(인공지능)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구글과 네이버는 한층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연달아 선보였다.

구글은 지난 19일 구글맵, 유튜브 등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시간 검색 결과를 연동해 개선한 AI 챗봇 ‘바드(Bard)’를 내놓았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쇼핑·페이 등 자사 서비스와 연계한 검색 서비스 ‘Cue:(큐:)’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 보니, 바드는 전체 자료수집에는 능통했지만 국내 관련 검색은 부정확했다. 네이버는 자료수집의 정확도는 떨어진 반면, 국내 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정확히 제공했다.



네이버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Cue:(큐:)’ 사용 승인 화면. /네이버

이처럼 두 서비스 모두 부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때가 많아 서비스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

◆**큐:, 한국 특화 vs 바드, 글로벌 검색**
먼저 구글 ‘바드’는 전세계 기반의 자료수집과 정보 제공에 능통했고 네이버 ‘큐:’는 국내 관련된 질문에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바드와 큐:에 영문과 한국어로 “12월 중 14박 15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하고 싶어. 가장 저렴한 비행기표를 찾아줘”라고 질문했다.

바드는 “가장 저렴한 인천국제공항-바르셀로나엘프리트공항 왕복 항공권은 43만 3000원으로 20일에 출발해서 31일에 돌아오는 비행기입니다. 항공은 터키항공입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한국어 질문에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을 네이버 큐:에도 했다. 하

지만 영문과 한국어 질문 모두에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등 정확한 금액도 제시하지 못했다.

큐:는 “12월 중 14박 15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하실 예정이라면, 항공권 가격은 약 70만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반면 네이버 ‘큐:’는 쇼핑과 장소 등 국내 생활에 밀접한 질문에는 곧잘 대답했다.

큐:에 “한국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노키온 브런치 카페를 추천해줘”라고 물었을 때 카페 몇 군데를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 정확한 위치와 후기, 예약 가능 여부 등도 함께 알려줬다.

반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바드는 노키온의 추천메뉴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의 노키즈존카페를 추천해달라고 질문하자, 고도화된

답변을 내놓았다. 카페 몇 군데를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 추천 메뉴에 대한 설명과 정확한 위치, 그리고 주의 사항까지 안내하며 한눈에 보기에 잘 정리된 답변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바드’는 전세계 1위 검색엔진 구글을 기반으로 전체 자료수집에 능통하다. 확장 기능을 통해 지메일, 구글독스, 구글맵,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해 답하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의 큐: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지역 기반 정보 등 생활 정보에 유용하다. 쇼핑, 페이, 플레이스 등 기존 네이버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서비스 모두 부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때가 많아 서비스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 구글과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AI 서비스의 답변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車 안에서 투석 치료”...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굴

2023 아이디어 페스티벌

‘세상을 바꾸는 마음 따뜻한 기술’ 주제 ‘H-sense·의좋은 오누이’ 대상 영예

‘드라이브루에서 청각장애인이 수어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면.’ ‘공유 전동킥보드를 휠체어에 결합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 전기차 안에서 편리하게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현대자동차·기아 임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들이 대거 공개됐다.

현대차·기아는 22일 남양기술연구소(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서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물을 직접 제작해 발표하는 ‘2023 아이디어 페스티벌’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2일 남양기술연구소에서 개최된 ‘2023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시나리오 부문 대상(의좋은 오누이) 이동경, 김희철, 문선희 책임연구원(왼쪽부터), CTO 김용화 사장, 제작 부문 대상(H-sense) 김혜리, 박재희 연구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창의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연구개발 열정과 창의력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진행되

는 행사다. 올해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세상을 바꾸는 마음 따뜻한 기술’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난 5월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15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돼 이날 본선에서 경합을 펼쳤다.

김용화 현대차·기아 CTO 사장은 “이번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모빌리티가 어떤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 심도있게 고민한 임직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창의적인 연구개발문화 조성을 위해 이러한 도전의 장을 지속해서 운영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 건설기계 3사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HD현대 건설기계 3사가 명절 전 협력사에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지속적인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자재대금 1327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사의 원자재, 부품,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690여 개사다. HD현대 건설기계 3사는 명절 전에 집중되는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재대금을 정기지급일보다 각각 2주가량 앞당겨 9월 27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주항공 대표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항공안전체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LGD, 17인치 폴더블 노트북용 OLED 양산 완성차업계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QHD 해상도... 주름현상 최소화

LG디스플레이가 더 큰 폴더블 노트북 패널을 양산하며 IT용 OLED 시장 경쟁력을 확대한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17인치 폴더블 노트북용 OLED 패널 양산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패널은 인폴딩 구조로 4대3 화면비에 QHD해상도를 갖췄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적용해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유기 발광층을 2개 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개발한 텐덤 OLED를 적용해 수명과 휘도를 높였다. IT 제품에서는 최적의 기술로 꼽

힌다.

OLED 소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분산시켜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등 화면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IT 제품에 최적의 기술로 꼽힌다.

기존 폴더블 패널과 달리 특수 소재를 적용해 접히는 부분의 주름(Crease) 현상을 최소화해 패널을 펼쳤을 때 더욱 매끄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다.

화면을 안으로 접는 ‘인 폴딩(in-Folding)’ 구조로 접히는 부분의 곡률을 3R(반지름 3mm)의 원의 휨 정도까지 낮춰 반으로 접었을 때 화면 위 아래가 밀착한 듯한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한다.

/김재용 기자 juk@

휴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 무상 지원

국내 완성차 업체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귀성·귀경 장거리 주행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25일 오전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는 1264개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에서 기아는 18개 지역서비스센터와 767개 서비스 협력사(오토큐)에서 실시하며, 공식 모바일 앱에서 쿠폰을 다운로드(소진 시까지)해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9개 지역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는 7개 지역 서비스센터, KG모빌리티는 2개 지역 서비스센터와 42개 협력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무상점검 기간 동안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점검,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휴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은 현장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 또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작사별 긴급 출동반도 상시 운영한다.

/양성운 기자

제주항공 ‘항공안전교실’ 교육기부

제주항공이 객실승무원 교육기부 사업을 지속하며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제주항공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제15회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에 참여해 ‘항공안전체험교실’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항공 객실승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부스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좌석벨트 및 산소마스크 착용방법 ▲구명복 사용법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글로벌 전동화 시장 리더십 확보... 고성능 기술력 '재입증'

현대자동차·기아

EV6 GT·제네시스 GV60

독일 차 전문지 평가 각각 1·2위
안전성·편의성·주행거동 등 평가
전용 플랫폼 E-GMP 우수성 '주목'



기아 EV6 GT.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동화 기술력을 앞세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전통의 자동차 강국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탑재된 동력 시스템 등의 우수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 EV6 GT와 제네시스 GV60이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 '아웃도 모터 슈포트' 전기차 비교평가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앞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동력 시스템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위즈오토가 선정한 '2023 위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에 선정된 바 있다.

'아웃도 모터 슈포트' 전기차 비교평가는 EV6 GT와 GV60 스포츠 플러스, 포드 머스탱 마하-E GT 등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중인 3개 브랜드의 고성능 트림을 대상으로 ▲보디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거동 ▲친환경성 ▲비용 등 7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EV6 GT는 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점 602점으로 GV60(586점), 머스탱 마하-E(552점)를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핸들링, 주행 역동성 등과 관련된 주행 거동 항목에서

는 95점을 받아 GV60(78점), 머스탱 마하-E(85점)를 크게 앞섰다.

GV60은 7개 평가 항목 중 실내 공간, 다용도성·기능성 등과 관련된 보디 항목과 가속력, 출력 지속성 등을 평가하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EV6GT에 근소하게 앞서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또 승차감과 정숙성, 편의사항과 관련된 편의성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위즈오토로부터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으로 선정된 현대차 아이오닉 6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초고속 충전 기술, 긴 주행거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오닉 6는 사륜구동 기준 최고 출력 239kW, 최대토크 605Nm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77.4kWh 배터리를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최대 524km(이륜구동, 18인치 휠 기준)에 달한다. 또 800V 고전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약 18분 만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초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는 초고속 충전, 낮은 무게 중심, 뛰어난 공간활용성 등 전기차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인 초고속 충전은 최대 800V까지 충전을 지원한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의 충전 속도보다 빠르다.

아웃도 모터 슈포트는 "EV6 GT는 재미있고 빠르게 달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코너링할 수 있는 차량"이라며 "가성비(가격대비 성능)가 뛰어나고 긴 보증기간과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의 우수성 덕분에 재판매 가치도 높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GV60은 센터콘솔에 위치한 다이얼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조작계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칭찬하며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제공하는 서스펜션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도 매력적"이라고 평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이동 패러다임 'AI 모빌리티' 시대 열 것

기체 제조사 준비와 UAM 상용화 기술·인프라 등 UAM 실증사업 투입
국내 환경 최적화된 운항 역량 검증



지난 20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하민용 SKT CDO(왼쪽)와 에릭 엘리슨 조비 부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SK텔레콤이 글로벌 UAM(도심항공교통) 기체 제조사 준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대한민국 UAM 상용화에 나선다.

SKT는 조비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SK T타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기관도 참석해 양사와 실증사업을 포함한 향후 상용화 일정 및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사는 계약 체결과 함께 기술, 인프라, 인력 등 역량 전반을 UAM 실증사업에 투입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안전 운항 역량을 검증한다.

SKT와 조비는 내년 전남 고흥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실증사업 1단계에서 조비 기체(S4)를 활용해 ▲통합 정상 운용 ▲소음 측정 ▲

비정상 상황 대응 능력 ▲충돌 관리 등 비행 시나리오별 운항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SKT가 구축한 4G·5G 기반의 UAM 특화 상공망을 활용해 UAM 운항 고도인 300~600m 상공에서 통신 품질도 테스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비에서도 자사 기술인력 등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SKT가 2025년 국내 최초 상용화를 위해 안정적인 기체 확보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나 유럽항공안전청(EASA) 같은 글로벌 기관의 인증을 통과한 기체 확보가 필요하다.

조비는 FAA 기체 인증 절차 중 3단계인 인증 계획(Certification Plan)의 약 70% 이상을 완료하고 6월에는 양산형 기체를 공개하는 등 글로벌 업계에서 가장 빠른 인증 속도를 보이고 있다.

SKT는 6월 조비에 1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한국 시장에서 조비 기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SKT는 이번 계약과 함께 내년 조비 기체를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하민용 SKT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는 "이번 협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UAM 기체를 내년에 도입해 안전한 운항 역량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SKT는 UAM을 AI 기술과 접목해 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 美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한 '25년'

누적 2억2500만달러 기부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 호프 온 힐스 25주년 행사에서 환영 인사를 하는 모습.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아암 어린이 치료 지원 프로그램인 '현대 호프 온 힐스'의 2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현대차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소아암 퇴치를 위한 캠페인 '현대 호프 온 힐스(바퀴에 희망을 싣고)'의 2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비전에 의해 제품을 혁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전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에 전념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가 소중히 여기는 활동 중 하나가 호프 온 힐스다. 소아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돕고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톰 코튼 상원의원,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미 의회 의원들과 조현동 한국 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주미 대사, 장재훈·신재원·호세 무뇨스

사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과 호프 온 힐스 홍보대사 어린이, 병원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호프 온 힐스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현대차는 미국 딜러들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호프 온 힐스 재단을 설립하고, 1998년부터 소아암 관련 병원 및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소아암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소아암을 종식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성운 기자

KT, 추석 연휴 지니TV서 최신 영화·키즈 콘텐츠 풍성

해외로밍 혜택도 진행

KT는 추석 연휴기간에 지니 TV에서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와 해외로밍 혜택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지니 TV에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9일간 상영 중인 최신 영화와 추석 연휴에 볼만한 추천 영화를 꼽아 '2023 한가위 특집관'을 꾸리고 '한가위 선물 대잔치' 이벤트를 연다.

김혜수, 염정아 주연의 '밀수'와 이병헌, 박서준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

아',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1' 등 '한가위 특집관'에 편성된 최신 영화 약 20편 중 1편 이상 구매해 시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10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KT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엄선해 '연휴에 딱! 좋은 영화 모음 Zip' 메뉴를 새롭게 구성한다. '코코', '엘리멘탈', '라이스보이 슬립스', '해리포터 시리즈, 마블 시리즈와 '킬링 로맨스', '웅남이', '육사오' 등 약 200편의 영화를 모았다.

지니TV 가입자는 지니TV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TV 화면에서 구매한 영화들을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지니TV 모바일 앱에서 바로 콘텐츠 구매 및 시청,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KT는 '신병2', '남남',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등 자체 제작한 총 20편의 지니TV 오리지널을 3편 이상 시청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TV 쿠폰 3000원권을 주는 '지니 TV 오리지널 정주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구남영 기자

LGU+, 프로야구 실시간 승부예측 선택

'스포키' 실시간 데이터 반영 서비스

상된다.

LG유플러스가 자사의 통합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프로야구 승부 예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실시간 승부예측은 현재 점수 및 이닝, 아웃 카운트, 출루 상황 등 실황 데이터를 분석해 예상되는 경기 결과를 선수별 타석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하는 기능이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결과를 예상하는 만큼 정확도가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

이번 개편은 KBO 정규리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스포키 이용 고객들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를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시간 승부예측 외에도 스포키는 ▲AI 기반 하이라이트 영상 ▲타 구장 현황 확인 ▲오디오 모드 ▲팀 전력 비교 등 다양한 신규 기능을 선보이며 편의와 재미를 대폭 강화했다.

/구남영 기자

풍성한 한가위가 되세요

유한양행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건강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한양행

주도주 공백에 증발한 거래대금... 투자자들 관망세 '지속'

국내증시 리스크 부각 등으로 위축 기준금리 인상 등 조바심 높아져 IPO 대어 출연에 장회복세 가능성

국내증시에서 주도주가 사라지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들고 지수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 우려와 연휴 이후 예정된 3분기 실적 시즌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적 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은 15조3000억원으로 전 거래일(17조3000억원)보다 2조 가량 줄어들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22조9500억원이었고, 22일 21조3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테마주 열풍으로 '빛투(빛내서 투자)'가 급증하며 늘어났던 신용거래잔고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던 신용거래 용자는 8월 들어 다시 20조원대로 진입하더니, 17일에는 20조55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9월에 들어서서 20조1000억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달 21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규모는 20조2300억원이다.

과열된 열기로 우려를 샀던 국내 증시는 주도주 실종과 함께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조바심도 높아졌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코스피가 전 거래일(2514.97)보다 6.84포인트(0.27%) 내린 2508.13에 장을 마친 2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0.68)보다 3.33포인트(0.39%) 하락한 857.35에 거래를 종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9.7원)보다 2.9원 떨어진 1336.8원에 마감했다. /뉴스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 다양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투자증권은 9월 미국의 금리동결 이후 추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제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근원물가 중심의 디스플레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파적 동결로 인해 예상되는 장기금리 상승은 실물경기과 금융여건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증시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8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내달 3일까지 4거래일간 휴장한다. 국내 증시가 활기를 잃은 상태에서 장기 휴장까지 더해지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언급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3분기 실적 시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수출입,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 3분기 실적 시즌 등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4거래일 간 휴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9월 FOMC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더라도, 주가가 가격 부담을 털어낸 상황에서 실적 시즌을 맞이한다는 것은 10월 전체를 놓고 보면 긍정적인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상반기 부진했던 기업공개(IPO)시장의 대어 출연도 장회복세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원은 "IPO 시장이 활발할 때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연휴 이후 두산로보틱스 등 대어들의 상장 진행되면 기대감이 다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세'

재건축이 상승 추세 주도 전망 매수심리 일주일만에 하락세

최근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재건축 주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8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던 매수심리는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3%) 대비 0.12%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셋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해 18주 연속 오름세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19%→0.20%)가 금호·응봉동 역세권 선호 단지, 동대문구(0.16%→0.20%)는 답십리·장안동 대단지, 중구(0.18%→0.17%)는 신당·황학동 중소형 평형, 용산구(0.18%→0.17%)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남권에서는 양천구(0.18%→0.15%)가 목·신정동 신축, 영등포구

(0.15%→0.14%)가 여의도·신길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동남권의 경우 송파구(0.24%→0.24%)는 잠실·신천동, 강동구(0.21%→0.18%)는 암사·강일·고덕동 대단지, 강남구(0.20%→0.16%)는 대치·개포동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주요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6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58㎡가 7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매매가격(6억2500만원) 대비 7500만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2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김대한 기자 kdh@

이달 마지막주 전국 '519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보문센트럴아이파크 등 청약

9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5194가구(일반분양 402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센트럴아이파크', 서울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센트럴', 전남 장성군 진원면 '첨단제일풍경재'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주에는 건복주택 오픈 단지가 전무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일원에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보문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동, 총 199가구 규모로 조성되



힐스테이트 관악센트럴 모델 조감도. /현대건설

며, 이 중 전용면적 76·81㎡, 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역 환승역인 보문역이 바로 앞에 위치했다. 동신초, 안암초, 용문중·고, 경동고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대학병원, 전통시장 등도 가깝다.

/김대한 기자

우미건설 '울산 다운2지구' 내달 분양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동

우미건설이 다음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일대 '다운2지구'에서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리'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리'는 다운2지구 B-2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43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운2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만2967㎡ 부지를 개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만 2000여 가구가 거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단지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도보권에 유치원·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계획돼 있다. 남측으로는 근린공원이 예정돼 있다. 문화재발굴조사 구역 지정으로 인한 문화재발굴과 역사문화공원의 조성도 추가로 확정되면서 주거쾌적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한 기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6개월 '특별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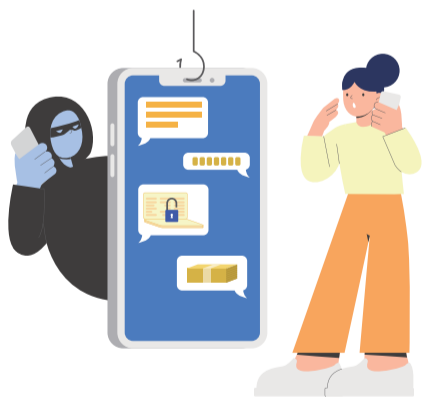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 모집 기준 '피싱' 범죄와 수법 유사 원금보장·고수익 등 악용 사례

#A씨는 한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미 A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투자리딩방을 받다가 돈을 잃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손실을 달러와 같은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주겠다고 했다. 보상을 받고 싶었던 A씨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주고 전달했다. 범인들은 A씨 명의로 카드사,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고는 잠적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투자리딩방이란 전화나 사화관계망 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접근한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허프레이팅 시스템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국가수는 올해 초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로 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범행 수법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범인들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와 함께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기존의 '피싱' 범죄와 유사한 수법도 이용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

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투자리딩방 불법행위가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국가수 관계자는 "그간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서 비대면과 온라인, 대포물건, 초국경 등이 특징이었는데 최근 범죄는 모두 이런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이거나 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자체 설비로 ‘고농축 콜드브루’ 생산… 연매출 500억 너끈”

Q & A | 흥성 커피공장 ‘넥스트바이오’ 가보니

“우리가 개발한 ‘고농도 저온 추출 기술’은 에스프레소에 비해 3배 이상 진한 콜드브루 커피 원액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 최초’라고 자부한다. 이 기술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기술 인증’도 받았다. 커피 자동화 추출 장비와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해 설치했다.” 2008년 넥스트바이오를 창업한 신언무 대표의 설명이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커피향이 이 반긴다. 한우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에서 커피공장이 있다.

영동고속도로 새말IC 바로 옆 우천제2농공단지. 세계 최초로 저온에서 고농도, 고효율, 고속으로 콜드브루 커피를 추출하는 기술을 갖춘 넥스트바이오가 있는 곳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350ml 기준으로 하루에 약 100만 잔의 정도의 콜드브루를 만들 수 있다. 이는 하루 10톤(t) 분량이다. 한 방울씩 떨어져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콜드브루 커피를 신기술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고농도 커피를 추출하는 넥스트바이오의 ‘슈퍼 드롭(super-drop)’ 기술은 별도의 농축 공정이 없고, 효율도 높아 생산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신 대표는 “이 기술은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CO2)를 덜 배출하게 된다.



넥스트바이오가 출시한 ‘브루젠’ 분말 커피 제품들.

자체 계산 결과 연간 122t의 CO2 절감 효과가 있다. 고농도다보니 물류 및 보관상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녹색 프로세스를 갖추게 된 셈”이라고 전했다.

물론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커피의 맛과 향, 성분은 그대로다.

이렇다보니 넥스트바이오가 만드는 콜드브루커피는 이미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할리스커피, 폴바셋, 테라로사,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커피 프랜차이즈에 있는 콜드브루 원액이나 분말 스틱은 모두 넥스트바이오가 만들어 납품한 제품들이다.

국내 뿐만이 아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인스턴트 커피회사인 네슬레(Nestle)에도 콜드브루 커피분말을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33억원 어치를 네슬레에 팔았다. 프랑스의 글로벌 향기회사인 MANE에도 콜드브루 커피 원액을 수출하고 있다.

흥성에서 우리의 토종 기술로 만든 콜드브루를 세계인들이 맛보고 향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엔 16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180억원, 내년엔 200억원 이상 매출을 각각 기대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는 8대2 정도다. 앞으로는 해외시



신언무 넥스트바이오 대표가 강원도 횡성 본사에서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넥스트바이오 흥성 공장에 있는 로스팅 설비.

에스프레소보다 3배 진한 커피
10t 이상 콜드브루 생산가능
할리스·폴바셋·투썸 등에 납품
국내 넘어 네슬레 등 해외 수출

‘브루젠’ 브랜드로 커피 8종 출시
노하우 토대 횡성 한우와 콜라보

장을 추가로 공략해 해외 비중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 요즘엔 K-푸드가 대세여서 국내에서 성공해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유리하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약 6t 가량의 원두를 배합하고 로스팅하고 분쇄하고 커피를 추출하는 이곳 흥성공장의 설비와 시스템은 넥스트바이오가 500억원 정도의 매출까지는 너끈하다.

OEM, ODM을 중심으로 생산했던 넥스트바이오의 최근 ‘브루젠’이란 자체 브랜드를 새로 내놔다. 바닐라커피, 디카페인커피 등 콜드브루 인스턴트커피 4종과 액상 커피(4종)를 각각 출시

하면서다. 쇼핑몰도 새로 오픈했다.

“연회비 5만원 유료회원(브루젠 환경보호서포터즈)의 경우 4만원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1만원은 자연환경보호기금으로 기부한다. 회사도 1만원을 매칭해 고객과 같이 기부한다. 유료 회원에게는 전 품목 4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일단 1000명이 목표다.”

신 대표는 금융인 출신이다. 국민은행 기획파트에서 10년,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파트에서 10년을 근무하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 2002년에는 넥스트바이오의 전신인 유맥스를 창업했다.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재료에서 가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것이 본업인 회사다. 당시 아이템은 참기름이었다. 그러다 유맥스를 매각하고 계열사였던 넥스트바이오를 커피공장으로 탈바꿈시켰다.

“IMF가 끝나고 2000년대 초엔 창업 투자회사도 차렸었다. 그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기업에 투자를 하다보니 경영진들의 모럴헤저드가 무척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제조업에 뛰어

들어 회사를 경영해보자고 생각했었다. 도전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창업했다. (웃음)”

신 대표가 사업에 직접 뛰어들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흘렀다. 문과 출신이지만 이공계 출신 만큼 기술자도 닦았다. 세계에서 최고의 콜드브루 커피를 만들기위해 임직원들과 하나, 하나씩 연구하고 해결해 온 결과다.

“지금도 사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좋다.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이라는 가치를 통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꿈이다.”

넥스트바이오와 신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커피 제조 노하우를 토대로 회사가 있는 횡성이란 지역과의 콜라보 등 넥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한우, 그리고 랜드마크 커피 전문점이 그것이다.

넥스트바이오의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인증과 함께 강원스타기업,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도 이름을 올렸다. 브루젠 콜드브루 커피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인증도 받았다.

/횡성(강원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베트남 진출 韓기업 판로개척 등 추가지원

베트남중소기업협회와 업무협약
“양 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원할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2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 기획투자부 청사에서 베트남중소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중소기업협회(Vietnam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VINASME)는 2005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를 지원하는 베트남 중소기업 대표 단체로, 6만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중소기업 관계 교류 확대 논의를 계기로 체결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바이어 발굴 등 판로

개척 지원 ▲정보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트란 두이 동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도 참석해 양국 중소기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노동, 금융 지원 확대 등 베트남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자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이라며 “양 기관은 서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하노이에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글로벌 포럼인 백두포럼을 베트남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공영흡소핑
쌀나눔 릴레이 캠페인

공영흡소핑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지역단위로 ‘사랑의 쌀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간다.

24일 공영흡소핑에 따르면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경기 동두천 및 고양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각각 쌀1000kg(10kgX100포)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푸드뱅크사업(경북, 광주, 충북 광역푸드뱅크)에도 쌀 6000kg 등 총 8000kg을 전달했다.

공영흡소핑은 지난달 3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랑의 쌀나눔 릴레이 캠페인 등 ESG상생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영흡소핑이 연간 캠페인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쌀나눔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사업에 기부함으로써 지역협의회 및 전국단위 푸드마켓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푸드뱅크사업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에게 식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해주는 물적자원 전달사업이다.

전국적으로 445개소의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설치 운영해 결식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2023년형 프라임 전기레인지 출시

700°C까지 견디는 내구성 갖춰

코웨이가 강력한 화력과 미니멀 디자인을 갖춘 ‘2023년형 코웨이 프라임 전기레인지’ 5종(사진)을 출시했다.

24일 코웨이에서 따르면 이번 신제품

은 독일 쇼트세란의 세라믹 글라스 상판을 사용한 ‘프라임S 전기레인지’ 3종과 프랑스 유로케라의 세라믹 글라스 상판을 사용한 ‘프라임 전기레인지’ 2종이다.

두 모델 모두 최대 700°C까지 견디는

강력한 내구성을 갖췄으며 세라믹 소재로 스크래치에 강하고 청소가 쉽다. 렌탈 방문관리 서비스 고객에게는 약정 기간 내에 1회 상판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나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코웨이 2023년형 전기레인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화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CVC 스케일업 펀드’ 800억원 조성… 개방형 혁신 촉진

(기업형 벤처캐피탈)

산업부, 내달까지 운용사 모집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서
대·중견기업-중소 협력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펀드가 8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VC 스케일업 펀드’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CVC를 설립한 모기업이 투자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다.

산업부는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신산업 창출, 신시장 개척과 함께 국내 산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CVC 모기업들은 중소기업

에 자사의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신제품 공동 개발, 납품·협력사로의 편입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면서 우리 산업의 개방형 혁신에 일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지난 3월 총 121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제1, 2호 펀드의 후속 펀드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400억원을 출자해 총 800억원 규모 이상 결성이 목표다. 주요 투자대상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산업기술전략투자분야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CVC 펀드 특성에 맞게 운용사 선정 시 펀드 운용능력 외에도 모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역량, 네트워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피투자기업의 지원과 연계하는 전략과 체계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2개사 내외로 오는 1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밸류체인 협력이 중요하며, 주요국에서는 CVC가 이러한 혁신 생태계의 중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CVC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발표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CVC 스케일업 펀드가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구성립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좌)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엔터, 웹소설 2차 저작물 권한 뺏어

공정위, 과징금 5.4억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의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까지 ‘제2회 추미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비교해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라는 특성상, 원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

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성립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SF 차단 위해 첨단드론·전문 포획단 투입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식품부-환경부 공동 대책 마련
경북북부지역서 남하·확산 차단
광역울타리 출입문 자동화 등 추진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야산에서 상주시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 설치 및 멧돼지 기피제 살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확산이 우려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드론과 야생멧돼지 전문 포획단을 투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확산하는 사태를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해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해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

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염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염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염전에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환경부,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종 지정

히말라야산양 150종 유입주의종

환경부가 24일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

개미와 유사한 열대불개미는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반입, 사육,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방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뜻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추석 앞두고 ‘친환경 위반’ 제품 집중관리

환경산업기술원, 백화점 등 특별점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26일부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백화점 및 온라인 매장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이다.

기술원은 이번 집중 관리에 시장감시단 50명을 투입한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기 위해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 추석연휴 기간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한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결면이나 포장에 품목과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돼야 한다.

부당·법률위반 생활화학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ONTES ALPHA

A TOUCH OF GRACE

나의 첫 와인 몬테스 알파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호텔서 주방·모래놀이 해요”... 황금연휴 키캉스 행사 풍성

**경주 코오롱호텔 ‘드림키즈’ 공간
원목주방·마트놀이 세트 등 설치**
**레고랜드호텔 연령대별 특화
위터플레이·등대만들기 등 진행**
**포시즌스 호텔 서울 화가와 협업
‘드림 인 컬러’ 키즈 패키지 출시**



코오롱호텔 드림키즈 공간.

/코오롱호텔

최근 아이의 경험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은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자녀가 ‘골드키즈’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호텔, 패션 등 유통업계도 골드키즈들을 겨냥해 이색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업계는 그림놀이, 물놀이 등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연휴’를 맞아 주요 호텔업체들이 골드키즈를 위한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2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경주코오롱

호텔, 레고랜드 호텔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구성에 나선다.

코오롱호텔 관계자는 “황금연휴가 있는 이번 가을 시즌, 아이들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새로운 키즈 콘텐츠를 오픈하게 됐다”며 “아이들과 부모 모두 편안한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코오롱호텔에서 특별한 가을 추억을 쌓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코오롱호텔의 경우 다채로운 ‘키캉스’ 콘텐츠가 가득한 ‘드림 키즈’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주방놀이, 모래놀이, 색칠놀이 등 총 세 가지 콘셉트로 마련됐다.

주방놀이 공간에는 원목 주방 및 마트놀이 세트가 설치돼 역할극을 할 수

있다. 모래놀이 공간에서는 부드러운 모래를 활용해 촉감놀이를, 색칠놀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교안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각 공간은 프론트에서 입장권 구매 후 이용 가능하다.

레고랜드 호텔은 연령대 별로 특화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유아를 위해 내달 초까지 0.6m 수심의 야외 수영장 ‘위터 플레이’를 운영한다. ‘키즈 그라운드’에서는 동물안경과 바람개비 만들기(5~7세), 에코백 색칠하기(5~13세), 등대 만들기(8~13세) 등의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는 레고 브릭을 활용한 다양한 조립법을 배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행복을 그리 는 화가’로 불리는 스페인 에바 알머슨 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드림 인 컬러’ 키즈 패키지를 출시했다. 에바 알머슨 의 작품이 포함된 에코백, 파우치, 드로잉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불독 인형까지 증정한다. 객실 내에는

키즈 텐트가 세팅돼 있어 그림놀이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패키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SAM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인기 어린이 캐릭터 ‘캐치! 티니핑’ 시즌 4를 공개하고 오프라인 공간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판교 ‘파미어스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약 600평 규모의 ‘티니핑월드 판교’를 오픈한다. 해당 공간에는 미디어 체험 카페, 스토어와 문화놀이공간, 베이커리카페, 코스튬 체험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MLB키즈는 F/W 시즌을 맞아 ‘그린 플레이 컬렉션’을 공개하고, 출시 기념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야구공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컬렉션을 살펴보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온 가족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내달 4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에서, 내달 17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에서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이커머스 전쟁 진행중... 11번가, 살아있다”

**안정은 11번가 사장, 유튜브 출연
아마존 론칭이 버티컬서비스 강화
“신선식품·명품 등 분리, 반응 좋아”**



11번가 안정은 사장 EO 콘텐츠 화면./ 11번가

안정은 11번가 사장이 버티컬(전문관) 서비스, 슈팅배송 등을 통해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11번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안정은 사장은 최근 IT 관련 유튜브 채널 EO(이오)에 출연해 “600조 온·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에서 온라인은 200조 수준일 뿐이고, e커머스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안 사장은 “커머스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도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된 안 사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비전과 시장 상황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사장은 “e커머스 시장의 1위가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11번가

는 가격 경쟁력·셀렉션·배송경험 면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가고 있고, 최대한 고객 관점에서 이를 전하고 있다”며 “e커머스 시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e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가 50%에 육박할 정도로 독점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11번가 등 기타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기회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사장은 이번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미 이커머스 1위는 정해져 있고, 시장이 결정됐다고요? 저는 그렇

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후·네이버 등을 거치며 지난 20여년 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덕트 기획자’로 일해 온 안 사장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조하며 11번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좋은 프로덕트(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관찰과 실행력에서 나온다”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야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11번가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론칭한 데 이어 올해 버티컬(전문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안 대표는 “패션·식품·생활품을 각각 구매할 때 고객의 마음가짐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한 경험을 제공해야 좋은 구매 경험을 줄 수 있다”며 “백화점처럼 11번가 안에서 카테고리별로 관(버티컬)을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 신선식품(신선밥상), 중·리퍼(리퍼블리), 명품(우아룩스) 등 버티컬 서비스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CJ그룹, 협력업체 대금 1500억 조기지급

추석 앞두고 ‘상생경영’ 앞장

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CJ그룹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CJ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체에 약 1500억원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에서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는 대금 규모는 CJ제일제당 약 1200억원, CJ푸드빌 약 132억원 등이며, 중소 납품업체 120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결제 대금은 오는 26~27일 순차

CJ그룹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왔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체에 가중되는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CJ제일제당은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발굴해 필요자금 및 역량, 판로 등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움 동행’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GF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BGF

현대백그룹, 한양대와 모바일 앱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드라이브

현대백화점그룹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에 이어 대학과 손잡는 산학협력까지 추진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혁신에 필요한 기술력과 아이디어, 서비스 등을 외부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개방형 혁신을 일컫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한양대학교 창업

지원단과 산학협력을 통해 최근 O2O(온·오프라인 연계) 의류 수선 플랫폼 ‘얼핏(All FIT)’ 앱의 MVP(핵심 기능만 구현한 최소 기능 제품) 모델 개발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그룹 임직원 내부 테스트를 진행해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앱 개발이 끝나면 사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말 신규유망 사업을 발굴하던 중 온라인 의류 쇼핑의 ‘페인 포인트(고객이 불편을 느끼

는 지점)’에 주목했다. 착장이 불가능하고 브랜드 별로 사이즈가 달라 구매 후 수선이 필요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수선집을 찾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객과 수선집을 연결하는 O2O 의류 수선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앱 디자인 전문가 이동엽(한양대 4학년·24세) 학생이 플랫폼 개발 역량이 뛰어난 김호준(국민대 4학년·24세), 박정민(국민대 4학년·22세) 학생을 모아 팀을 꾸렸고, 이들은 약 10개월 만에 ‘얼핏’ MVP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

/최빛나 기자

CU, 협력사 90여곳에 230억 조기정산

편의점 업계 1위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오는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사를 대상으로 정산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BGF리테일의 이번 조기 정산금은 총 90여 개 상품 및 물류 등을 거래하는 협력사에 약 230억원의 규모로 지급된다.

이번 정산금 조기 지급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지급일보다 20여 일 가량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3년부터 현금 사용이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정산대금을 사전 지급해 중소기업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BGF리테일은 ▲한마음 힐링데이 ▲상생협력펀드기금 조성 ▲공정거래 및 존중 경영 모니터링 ▲협력사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 개척 ▲중소기업 상품 동반성장물 도입 등 편의점 업계의 차별화된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통해 협력사의 수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최빛나 기자

에이피알, '유니콘기업' 상장절차 개시... 내년 코스피 입성

올 상반기 영업이익 480억 기록
뷰티 디바이스 누적판매 100만대
입문템 '부스터힐러' 썸터 인기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상장 준비에 돌입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지난 22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유니콘 기업'으로서 상장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에이피알은 청구서 승인 후 증권신고서 제출과 수요예측, 청약 등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초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업을 의미한다.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된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와 뷰티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에이지알(AGE-R) 5종. /에이피알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이다.

에이피알은 지난 2021년 매출액 2591억원, 영업이익 142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매출액 3977억원, 영업이익 392억원으로 중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480억원 가량이다.

실적에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에이피알의 기업가치도 크게 상승했다. 에이피알은 올해 3월 7000억원 대 프리IPO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 6월 CJ온스타일로부터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유니콘 기업이 됐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이같은 에이피알 성장에는 국내·외에서 인기를 자랑하는 뷰티 디바이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마EMS샷 ▲유세라딕샷 ▲ATS에어샷 ▲부스터힐러 ▲아이샷 ▲바디샷 등 총 6종의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는 론칭 약 2년여 만에 국내·외 누적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에이피알이 지난 2022년 7월에 처음 선보인 '부스터힐러'는 뷰티 디바이스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에게 '입문템' 역할을 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 8월 '부스터힐러'가 에이피알의 최고 인기 제품으로 등극한 가운데 새로운 역대 최대 미국 월간 매출 기록을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오는 10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시술 및 제품 리스팅을 위한 포털 사이트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이피알은 미국 정부의 성분조사나 감사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포함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서명했다.

에이피알은 "국내 상당수 뷰티 기업

들이 제조 등에 있어 OEM·ODM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기획·유통사인) 에이피알 또한 규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 OEM·ODM사와 공동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에이피알이 미국에 수출 중인 화장품 제품에서 관련 규제 때문에 성분을 교체하거나, 제품 수출을 포기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를 비롯해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글램 디바이오 등의 자체 뷰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는 "에이피알은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국내외 뷰티 업계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성공리에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나라셀라, CEO·리더 위한 와인클래스 론칭

인문학·테이블 매너 등 내용 구성
매회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가능

와인 문화를 선도하는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는 와인복합문화공간 도운에서 'CEO & 리더 비즈니스 와인' 프로그램을 론칭했다고 24일 밝혔다.

CEO & 리더 비즈니스 와인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CEO를 비롯한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와인 교육 클래스로 기본적인 와인 지식부터 인문학은 물론, 비즈니스 및 테이블 매너 등 비즈니스의 품격을 높여주고 실전에서 널리 사용될 수 실용적인 내용들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매회 주제에 맞는 고급 케이터링이 제공되어 강의 후 자연스럽게 와인과 페어링한 음식을 즐기면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강의는 와인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검증된 강사진이 진행한다. 강사진으로는 김상미(국제 와인 전문가 인증 WSET Level 4 Diploma 현재 와인21닷컴 기자), 김주용(제21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우승자), 박찬준(국제와인품평회 아시아와인트로피의 아시아 디렉터 한국 국제소믈리에협회 부회장(국제협력), 신성호(나라셀라

와인문화연구소 이사), 오형우(현재 코스모 엘앤비 대표, 2015 소믈리에 왕중왕전 우승자), 이인순(국제 와인 전문가 인증 WSET Level 4 Diploma, 현재 국제소믈리에협회 부회장), 최정욱(최정욱 와인연구소 소장 광명시청 주무관 및 광명동굴 와인연구소장), 김민주(신세계 버건디 & 헤드소믈리에 2019 코리아 소믈리에 오브 더 우승자)가 각각 다른 주제를 맡아 진행한다.

10월 18일 웰컴 파티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KORII에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축배를 들 예정이다. 이후 8주간의 교육은 프라이빗 룸 '다운 스페이스'에서 11명을 위한 소규모 클래스로 진행된다.

해당 과정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으로 신청 및 문의는 도운 인스타그램 DM 또는 도운 스페이스로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그린푸드, '비노에이치 와인 세트' 선포

추석 맞아 전국 16개 점포서 판매

현대백화점그룹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 와인 매장에서 '비노에이치 와인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와인 수입·유통 전문사인 비노에이치(Vino.H)가 국내 단독으로 유통 중인 와인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선물상품은 '노당 페레 앤 피스 피노누아'와 '노당 페레 앤 피스 샤르도네'로 구성된 '프랑스 부르고뉴 세트(8만원)'다. 노당 페레 앤 피스는 프랑스 대표 와인 산지인 부르고뉴에서도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로, '꼬풍 샤를마뉴 그랑 크뤼'·'꼬풍 그랑 크뤼'·'사비니 프리미에 크뤼' 등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한다. 또한 농약 사용을 최소화한 재배 방식과 수작업 수확을 고집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슬로베니아 이스트리아 반도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구성된 '슬로베니아 기획 세트(20만원)'도 선보인다. 이 세트는 1200명만 한정 생산돼 국내에는 비노에이치가 단독으로 200병을 들여온 '블라직 소비농 플레시보 2015'와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 절차로 알려진 '데메터(demeter)' 인증을 받은 '코레니카 앤 모스콘 코르티카 2011'로 구성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아크네 스튜디오' 입점

신세계사이먼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지난 22일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s)'가 입점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크네 스튜디오가 국내 아울렛에 단독 매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웨덴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는 MZ 세대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신(新)명품', 'MZ명품'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WEST 명품광장 인근에 약 40평 규모로 문을 연 아크네 스튜디오 매장에서는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맨투맨, 니트, 재킷, 코트 등 F/W 시즌 상품과 더불어 S/S 시즌 상품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스타벅스, 매장 방문고객에 선물 증정

600개 거점 매장에서 이벤트 진행

스타벅스코리아는 25일부터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선물 증정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다.

스타벅스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 중 선정된 600개의 거점 매장에서 제조 음료 포함 3만5000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MD 상품 1종을 소진 시까지 증정한다.

600개의 스타벅스 거점 매장에서는 스타벅스 보온병, 텀블러, 머그, 키링 등 100여 종의 MD 상품을 만날 수 있으며, 매장을 방문해 제조 음료 및 푸드 등을 주문하면 현장에서 직접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MD상품은 'JNL 어뮤즈먼트

파크 보온병 500ml', '더종로 시온 스토어 머그 414ml', '아웃도어 스프링클러 세트', '스타벅스 1호점 랩탑 파우치' 등 다양한 MD 상품으로 구성됐다.

일부 상품은 스타벅스 용인에버랜드점, 스타벅스 1호점인 이대R점, 더종로 R점 등 일부 매장에서만 특화 상품으로 판매되는 품목도 포함되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MD 상품도 만날 수 있다.

스타벅스 추석맞이 서프라이즈 이벤트 진행 매장은 서울, 경기, 부산, 제주, 광주, 충청 등 다양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편하게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깜짝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한승호 이화의료아카데미 원장이 서울 '이화의료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 바이오헬스케어 인재 양성

산업인력공, 신규지원 과제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5일 이화의료아카데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신규지원 과제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화의료아카데미가 연구책임기관으로 참여해 '첨단 기술 활용 의료 관련 제품 개발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훈련'이라는 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총 연구기간은 2023년 협약체결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정부출연금은 30억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화의료아카데미는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맞춤형 훈련과정 도입 ▲직군별 현장 적용 맞춤형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인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승호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첨단훈련과정을 도입하겠다"며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해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빌리티 기술의 미래, 현대모비스가 함께합니다





LG전자, 현실-가상 융합 '이세계 페스티벌' 열어

LG전자는 23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이세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콘셉트로 새 문화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Z세대에 인기가 높은 실제 아티스트와 함께 버추얼 아이돌인 '이세계아이돌'이 공연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LG전자는 도전과 실험정신을 대표하는 마케팅 플랫폼 LG 랩스의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라운지도 함께 소개했다. /LG전자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한화손해보험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범국민적 환경 캠페인이다.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폐이퍼리스 업무 확대와 폐사무기기를 재활용해 선순환 구축 활동 중에 있다"며 "생활습관 변경 캠페인 등 환경보존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



LIG넥스원 임직원, 현충원 참배... 묘역 정화활동

LIG넥스원 임직원 가족들이 제75회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난 2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와 봉사활동을 펼쳤다. 24일 LIG넥스원에 따르면 이날 LIG넥스원 임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봉사단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현충탑 참배 후 자매결연을 맺은 30묘역에서 현화와 태극기 교체 등 묘역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LIG넥스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 팔 걷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지난 22일 공사 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태국 민간항공교육원과 태국 내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최민아 인재개발원장(오른쪽)이 태국 민간항공교육원 퍼카넛 마초이 원장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김병연

부음

▲ 노금자씨 별세, 김성진(대한항공 기장)·김동하(개인사업)·김미진씨 모친상, 최영아·성지아씨 시모상, 황외진(MBC C&I 사장)씨 장모상 = 23일 오후 7시34분, 삼성서울병원 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장지 시간 추모공원 02-3410-3156

빌린 돈 갚기 싫다고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B는 A로부터 사업자금으로 7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2년 후 반드시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B의 사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A로부터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B는 처 C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 경우 A는 B에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형법 제327조). 민사재판의 집

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로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집행은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포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해 재산을 양도했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허위양도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돼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나타냄으로써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이르러, 이러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

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본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는 대여금의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 및 소유권이전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당시 변제일시가 이미 지난 상황에서 A가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본안소송으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태세를 보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B가 배우자 C에게 한 채권양도 및 소유권이전 행위가 진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역시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양도,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LG그룹, 전 세계 랜드마크서 부산 알린다... '엑스포' 유치 총력전

영 등 글로벌 유치교섭 활동 추진 '개최지 발표 시점까지 지속 홍보'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LG그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확정 2달여를 앞두고 전략적인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

LG는 엑스포 선정 투표일인 11월 말까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파리는 오는 11월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를 투표하고 발표하는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파리, 런던, 브뤼셀

은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BIE 회원국 대사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LG는 우선 11월 초부터 프랑스 파리 프낙 매장 4곳 대형 전광판에 부산엑스포 광고를 선보인다. 도심

에 있는 전자제품 및 도서 유통사로 많은 유동 인구가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파리 시내버스 약 2000대도 10월 말부터 부산엑스포 광고를 달고 다닌다. 11월 초에는 300여개 광고판을 더 배치한다.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대형 광고판이 설치된 상태다. BIE 회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도 부산엑스포로 물든다.

LG는 10월 중순부터 영국 런던에서 2층버스에 래광광고를, 브뤼셀 중앙역 인근에는 대형 벽면 광고를 진행한다. 그 밖에도 뉴욕 타임스

퀘어와 영국 피카딜리 전광판에서 홍보 영상 상영 횟수를 10배나 늘리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 등 LG의 주요 경영진들도 엑스포 최종 발표까지 각국에서 유치 교섭 활동도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에도 신문광고 등 활동을 지속한다.

LG 관계자는 "부산엑스포가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 시점까지 부산의 매력을 널리 알릴 막판 유치전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정관장 "소외된 이웃에孝 선물하세요"

대한적십자사와 '효배달' 캠페인

대한민국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은 추석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효(孝)배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효(孝)배달' 캠페인은 직원들이 모은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회사가 1:1로 매칭시켜 지원하는 '정관장

펀드'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네티즌의 참여로 모아진 금액을 더해 2억원 가량을 재원으로 사용했다.

회사는 물론 임직원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는 이번 행사는 우리 주위에 소외된 어르신에게 '효'를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자사 후원 국가대표 선수 8명을 초청해 대회 선전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선형(농구), '페이커' 이상혁(에스포트), 손지인(리듬체조), 조현주(스케이트보드), 송세라(펜싱), 최진우(높이뛰기), '비보이 워' 김현우(브레이킹), 오상욱(펜싱). /SK텔레콤

"항저우 아시안게임 함께 응원해요"

SKT '우리는 국대다' 캠페인

SK텔레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태극전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다양한 스포츠의 매력을 알리는 대국민 응원 캠페인 "The Great Journey - 우리는 국대다"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2항저우아시안게임을 열심히 준비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SK텔레콤은 네이버 스포츠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대회 기간 중 아시안게임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대회 기간 매일 1개 주요 경기에 대한 '이슈톡'이 선정되며, 팬들은 이 공간에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경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동원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구매·영업분야 등 100여명 채용

동원그룹이 2023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회사는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동원푸드, 동원로엑스, 동원디어푸드 등 6개 기업이며 구매, 마케팅, 연구, 영업, 물

류, 생산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총 100여 명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기졸업자나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 지원은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동원그룹 채용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탤런트 이 경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수욱~쑥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규제를 규제해라



김승호
시선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99%를 차지한다. 절대 다수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 중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정권은 하나도 없다. 대못을 뽑겠다, 전봇대를 옮기겠다, 가시를 제거하겠다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장관급인 국무조정실 산하의 규제조정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개혁은 민관이 한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어젠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중순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를 혁파해야한다고 소리쳤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90%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10%가 입법사항인데 이 중 노동분야의 경우 99%가 입법이 필요해 (규제개혁을 위해선) 정부, 기업, 국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사견으로는 58%도 후하게 준 점수다.

규제를 개혁하기위한 입법보다 더 많은 규제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국회와 의원님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 일삼고 있는 지금의 국회 모습만 보더라도 이번 21대 역시 별별일 없이 막을 내릴 것이 뻔하다.

규제개혁 목소리가 높은 곳이 또 벤처업계다.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기존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리걸테크(LegalTech·법률+기술) 등의 분야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과 신산업의 충돌, ‘다

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참여자간 침해한 대립이 그것이다.

한쪽은 규제를 없애달라고 아우성이다. 한쪽은 더 규제를 해달라고 난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개혁의 방향은 국민 대다수의 편에 무게중심을 뉘어야 한다. 소수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들 이유가 없다.

성상업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8월 말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3 벤처썬머포럼’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미미하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기존 직역단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과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사전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처럼 높지만 늘 결과는 시들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모든 것이 ‘단절’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수인계되는 것이 바로 ‘규제’다. 마치 이 정권에서 규제를 다 없애면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 없어 ‘배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다.

/bada@metroseoul.co.kr

‘135일의 기적’ 포스코... 상생협력 필요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135일의 기적’ ‘민·관·군 140만여명의 헌신’

포스코는 1970년 첫 삼을 뜬 후 3년 3개월 만인 1973년 종합제철 공장이 준공된 이후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산업의 쌀’ 공급처 역할을 하며 제조업 도약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위기를 맞으면 소속원들은 물론 민·관·군이 적극 지원에 나서며 지켜온 기업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불려온 초대형 재난에도 모두가 지켜내겠다는 신념 하나로 ‘꺼지지 않는 신화’를 이어왔다.

당시 포항제철소 현장 관계자는 “공장대부분이 침수되고 전기도 끊겨 참담했으며 당시 가장 그리웠던 건 설비 가동 소리였다”며 “회사 안팎 많은 분들의 지원 덕에 위

기를 극복했고 앞으로 양질의 제품을 차질 없게 공급해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위기를 이겨낸 포스코는 입단협 갈등으로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달 23일 20차 교섭 이후 28일 만인 지난 21일 올해 입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임금 인상 15만원(공통인상물 8만원 포함)’,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주식 400만원 한도내에서 일대일 매칭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격주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으로 회사의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사측의 추가 협상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앞서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하계휴가 및 휴가

비 신설 등과 괴리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포스코 노조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것은 직원과 임원의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가 공식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3% 인상된 약 24억원을 기록했다. 또 유병욱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은 9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13억2900만원, 이시우 포스코 사장은 9억5900만원을 받았다.

반면 포스코 직원들은 같은 기간 평균 급여가 5200만원으로 지난해 4950만원(환산액)에 비해 5.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측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로 인해 상반기 실적 감소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위기에 노사가 함께 지켜온 회사지만 입단협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포스코는 물론 대한민국 산업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ysw@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작유망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트레이닝 스투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투쿠365 | 10,000원

7		9	2		5
	6			9	
	9	5		2	3
9		6	8		3
			4		
4		3	5		8
	2	7		5	4
		9		7	
5		2	6		9

		9	8	6	
1					6
	6			7	
2		5	8		4
5			1		3
8		2	3		1
	5			8	
7					3
		4	5	1	

정답

6	8	9	2	7	1	9		
1	2	7	8	9	6	9		
9	7	9	6	8	1	2	8	
8	2	1	9	6	8	2	9	7
2	6	9	1	7	2	8	9	8
9	5	7	8	2	9	1	2	6
7	8	2	1	9	8	9	6	1
2	1	6	8	9	7	9	8	2
9	9	8	2	1	6	8	7	2

2	2	6	1	9	7	8	9	
9	8	1	6	9	8	2	2	7
9	7	8	2	2	8	9	6	1
1	6	9	8	7	2	2	9	8
8	8	2	2	1	9	6	7	9
7	2	9	8	6	9	1	8	2
8	9	2	7	8	1	9	2	6
6	9	7	9	2	2	8	1	8
2	1	8	9	8	6	7	9	2

고난이도의 워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 오늘의 운세** 9월 25일 (음 8월 11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안먹는다. 48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풀리니 다시 노력을. 60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72년생 오늘이 화장이 진해도 길하다. 84년생 인생은 오월동주(吳越同舟)이다.
 - 소** 37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49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하는 것이. 61년생 힘든 일은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 73년생 마음이 편안 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85년생 인생의 즐거움은 다양하게 있다.
 - 호랑이** 38년생 사색하는 사람이 많지만 극복된다. 50년생 권불심년이라 하지 않았던가. 62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는 고통이 될 수. 74년생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얼 것을 준비. 86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 토끼** 39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뜻을 세워보자. 51년생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63년생 가까운 것을 천하게 생각하고 먼 데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75년생 어제 본 사람에게 관심이 온다. 8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운전 조심하.
 - 용** 40년생 신념이 있으면 귀신도 이를 피하여 해하지 않는다. 52년생 운수가 궁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니 상담을 해보라. 64년생 협업이 서로이익. 76년생 망하는 신이 주신 선물이니 잊을 것은 잊어라. 88년생 눈앞보다 내일을 준비.
 - 뱀** 41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53년생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운 좋은 날. 65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오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77년생 이 또한 지나가리니 오늘은 참고 견뎌라. 89년생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에 감사한 마음.
 - 말** 42년생 사람이 모이면 흠뻑지도 일어나다. 54년생 지금이라도 고정관념에서 변화를 찾아보자. 66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78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노를 힘껏 저어라. 90년생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 양** 43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다. 55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 67년생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니 좀 쉬어야. 79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 91년생 상대가 변하기보다는 내가 변해야 발전.
 - 원숭이** 4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져니 실망은 금물. 56년생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된다. 68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 돌 곳을 모르겠다. 80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이 유혹하니 중심을 잘 잡자. 92년생 조연은 변화의 에너지가 아닐까.
 - 닭** 45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57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조심. 6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81년생 이직보다는 직장내 충실. 93년생 잘못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 개** 46년생 지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도록. 58년생 현상 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70년생 지나간 실패는 빨리 잊고 새 출발. 82년생 어떤 상황에도 가족과의 약속은 지켜야 미래가 보장. 94년생 봄기운처럼 살라는 하루.
 - 돼지** 47년생 시기질투를 두려워할 것 없다. 59년생 오늘일은 오늘 마무리하고 기술을 배우자. 71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83년생 과속은 금물이니 양보하라. 95년생 잘못은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



김상희의四季 출입구와 재물

돈이 대세인 시대 부자가 되려면 운세를 잘 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다. 큰 부자가 아니라 작은 부자만 돼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 작은 부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대략 두 가지로 볼 때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모은 돈이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이때 풍수에서는 재물과 연관해서 현관이나 출입구를 중하게 여긴다. 재물을 부르는 기운과 새나가는 기운이 문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물을 불러들이려면 무엇보다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어두운 분위기는 재물의 기운이 응집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현관을 밝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안으로 들어서려고 문을 여는데 현관문에서 듣기 싫은 삐걱 소리가 난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틀이 맞지 않아서 열거나 닫을 때 불편한 문도 마찬가지로. 문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현관을 말끔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되돌아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풍수에서는 여러 요소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답은 없다.

건물 전체의 크기 그리고 건물 내부와 비교해서 조화를 이루면 된다. 자영업 사무실도 다르지 않다. 현관이 드나들기 편하고 깔끔하고 분위기가 밝아야 재물이 흘러들어 온다. 사무실 현관을 열었을 때 창문이 바로 보인다면 그리 좋지 않다. 들어온 재물이 머물지 않고 창문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다. 창문들이 잘 맞지 않아 틈이 생겼다면 그것도 재물이 새 나가는 구멍이 될 수 있다. 현관 출입구 근처에 배수구가 있어도 좋은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런 경우에는 배수구 위에 화분을 놓는 것도 방법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2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8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폐교·대학 기숙사 '숙박시설' 전환 신촌·종로 등 모텔촌 재정비 추진

서울시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
폐교 리모델링 '유스호스텔' 짓고
연내 '캠퍼스스테이' 추진안 수립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손질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확대 제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폐교를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을 추진하고 외국 학생들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가칭)'를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모텔촌을 재정비하는 한편 도시민박업 등록 대상 건축물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단체 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지원하기 위해 폐교, 대학 기숙사, 노후 상가 등을 활용키로 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옛 공하고 부지(방화동)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를 해당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가칭)'도 선보인다. 시는 연내 추진안을 수립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1~2개교를 선정, 내년 방학 기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활성화'에 나선다.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자치구 건축사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동대문, 신촌, 구의역 일대 상가의 용도변경을 고려 중이다.

또 시는 장기적으로 숙박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돕는다. 시는 노선형 상업지역이 주로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도심)에 위치해 숙박시설이 확충될

경우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세우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노후 모텔이 밀집된 신촌역 주변,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관광숙박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강·한옥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마련한다.

현재 관광진흥협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 사항을 손질해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2012~201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다. 시는 숙박시설의 용적률, 높이(층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같은 절차를 줄이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융자조건 우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초시청. /서울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개선 휴서울센터 확대설치 추진

**노동자 개개인 노동복지서비스
특화 노동복지 프로그램도 실시**

서울시가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복지관 공간 운영 개선과 휴서울센터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24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노동자복지관 혁신으로 취약노동자 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선다.

시는 "노동자복지관 혁신을 통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 노동자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 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무공간을 최소화하는 등 복지관 공간 운영을 손질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노동단체 중심에서 노동자 개개인을 위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복지시설 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공간 재구성 과 복지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노동자복지관 입주단체 선정 절차를 도입(공개모집·선정)하고, 기존 노조 사무실을 복지공간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초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특

화된 노동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양한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맞춰 야간시간대에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8월 시는 노동자 복지관 시설 이용료 등을 규정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용료는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경우 기본 이용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6만~12만원, 서울시강북노동자복지관은 4만~1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본 이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로 이용 금액이 추가로 징수된다.

올 연말까지 시는 노동자복지관 지원시설을 전면 재구성하고 취약 노동자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쉼터를 확대한다. 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쉼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서초쉼터(서초구 사평대로 354) ▲북창쉼터(중구 세종대로 14길 38) ▲합정쉼터(마포구 독막로5) ▲미디어쉼터(마포구 매봉산로 37) ▲셔틀쉼터(은평구 통일로 680) 총 5개의 휴(休)서울노동자쉼터를 가동 중이다. /김현정 기자

내년도 교육부 R&D예산 1400억 삭감

안민석 의원 공개... 5384억→3951억
지원강화 약속 후 '삭감'... 논란 예상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학문·연구 지원 강화를 약속해 놓고 관련 예산은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5384억원이던 지난해보다 1433억원(26.6%) 줄어든 3951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과 개인기초연구

구사업으로 나뉜다. 관련 예산은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쓰인다.

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지만,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 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56%)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되긴 하지만,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ihj@

경기도생산 농축수산물 '누구나' 20% 할인판매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할 경우 누구나 구입 가격의 20%를 할인해주는 사업을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편성한 1회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22일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할인은 경기도 생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이며 연말까지 1인당 20%(1인 최대 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 혜택 지원 시기는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시군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참여업체 모집이 완료되는 10월 초가 될 전망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美태양광시장, 10년내 5배 성장 전망...
▲이스라엘군 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부대에 드론공격 /사진 뉴시스

▲美 총기대응기구 발표 다음날...대낮 총격으로 3명 사망
▲우크라이나, 러 흑해함대 사령부 공격 다음날 세바스토폴 미사일공격



▲이란-몰디브, 7년만에 외교 관계 복원 발표
▲국제유가 '연내 100달러 돌파' 전망...연준 금리 인상 부추기나 /사진 뉴시스



호텔업계
황금연휴
키캉스 행사 풍성
니



Life

에이피알
유니콘기업
상장절차 개시
L2



“초고령사회 눈앞... 행복한 노년 위한 돌봄·사회서비스 필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원광재 사무국장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과 사회서비스 융합모델은 사회적기업이 담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복지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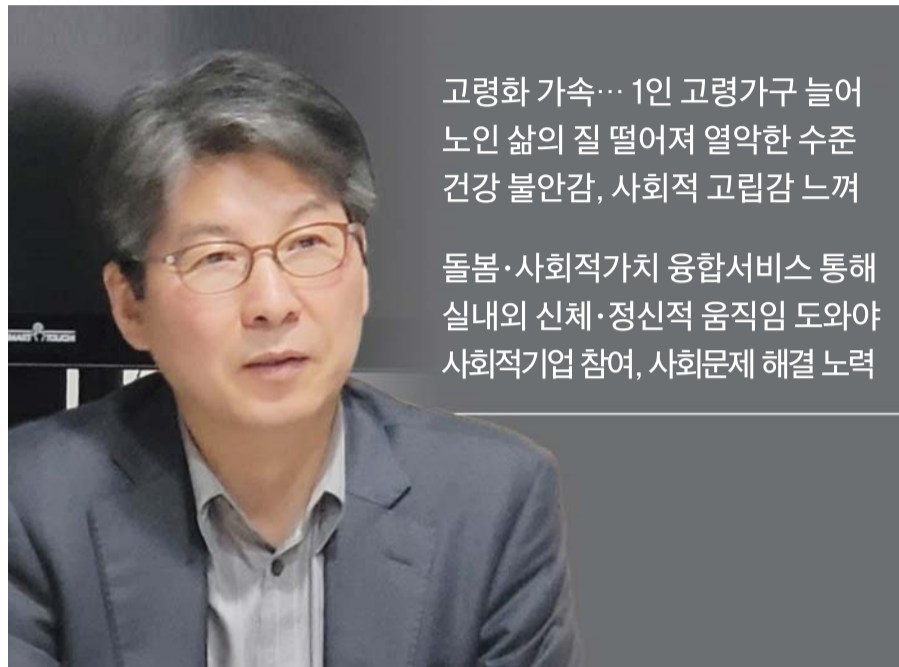
스타트업 컨설턴트인 원광재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1인 고령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기존의 돌봄 사업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한적 돌봄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8%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1인 가구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고령 1인 가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36.1%를 차지했으며, 2045년에 47%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노령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인 고령가구는 전체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거노인들의 행복감은 5.87점(10점 기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원광재 사무국장은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건강이 악화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고



고령화 가속... 1인 고령가구 늘어
노인 삶의 질 떨어져 열악한 수준
건강 불안감, 사회적 고립감 느껴

돌봄·사회적가치 융합서비스 통해
실내외 신체·정신적 움직임 도와야
사회적기업 참여, 사회문제 해결 노력



독거 어르신 돌봄을 위한 AI 기반의 사회적기업 연합솔루션 호드림 사업.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립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독거노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 시점에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독거노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적인 영향력(Collective Impact) 방식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추진한다.

원 사무국장은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65세 이상 인구가 20%까지 도달하는 데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와 행복한 삶을 위해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 모델은 장기요양 돌봄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연합해 독거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정

서활동 등을 진행해 고독한 노년기 삶에 행복과 사회적 관계망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대기업의 사회복지 나눔재단과 협업했다. 재단법인 행복커넥트(SKT)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와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 국장은 “집안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돌봄서비스를 하고 집 밖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동행 도움을 받아 공예나 원예활동으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 치매를 예방하거나 사회관계망을 높이고 있다”며 “새롭게 추진하는 인생노트 사업은 요양보호사들이 시민작가가 돼 독거 어르신들의 인생 여정을 구슬로 엮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사람의 개인이 살아온 희로애락을 기록하고 모아 지역에서 묻혀버리기 쉬운 일상의 기록을 보존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이런 사업들은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한 가

치 있는 일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소속된 여러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독거 어르신들의 제반 문제를 공동의 해결 목표로 제시하고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

원 국장은 “노인 등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선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원 국장은 “독거 어르신 필요 돌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돌봄 서비스 제공 기업이 늘어나도록 추진하고 돌봄 서비스 효과성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대상자 특성별 최적 돌봄 서비스 모델화, AI 연계 사회서비스 최적 모델 등을 통해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온·오프 연계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 콘텐츠·프로그램 고도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세 번째로 AI/ICT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 니즈 사항 및 돌봄 필요 콘텐츠를 선보이고 지속 가능 돌봄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간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의 접목을 시도할 예정이다.

원 국장은 “지자체 돌봄 사업 연계 통한 예산 확보, 경기도 내 돌봄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민간 기업 자본 참여 유도 등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업활동은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원 국장은 기대하고 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토이미지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KBO리그 오늘 4년 만에 700만 관중 넘는다
▲홀런 3방 얻어맞은 류현진 “구속이 문제였다” /사진 뉴스스

▲한국·브라질·이탈리아 레전드 올스타전, 25일부터 예매
▲황희찬, 3경기 연속골 불발...‘퇴장 악재’ 울버햄프턴 무승부



▲항저우AG 한국 첫 메달은 근대5종 여자 은메달 김선우 /사진 뉴스스
▲멀고도 먼 승리...女배구, 태국에 저울림픽 예선 6연패